

다시 읽는 ‘중국 석굴사 연구(中國石窟寺研究)’

이정은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I

이 책은 중국 석굴사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¹⁾. 저자 숙백선생은 중국 북경대학 교수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석굴사원을 연구하였다. 그는 1950년 이후 중국 내 석굴사원에 대한 조사과 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굴사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문헌자료 검토라는 철저한 학문적 기초위에서 논문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²⁾.

그는 1950년 안북문물고찰단(雁北文物考察團)의 일원으로 대동 운강석굴을 조사한 후 매년 학생들과 함께 조사와 답사를 실시하였고, 1951년 청화대학 조정지(趙正之)선생과 돈황석굴을 조사하였다. 1957년에는 북경대학 학생들과 함께 북향당산석굴을 조사 실측하고, 1961~62년에는 북경대학 전공학생들과 돈황석굴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979~1981년에는 키질석굴을 조사하는 등 이미 50~60년대부터 운강석굴, 돈황석굴, 향당산석굴, 키질석굴

1) 숙백, 『중국석굴사연구(中國石窟寺研究)』, 문물출판사, 1996.

2) 저자 숙백은 요녕성 심양에서 출생하였으며 1944년 북경대고고학과 졸업, 1948년 연 구생졸업, 1978년부터 북경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이력과 연구에 관해서는 『중국대백과전서·고고학』의 p.496 숙백 편 참조

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석굴사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돈황석굴을 조사하면서 쓴 돈황7강(敦煌七講)³⁾은 그의 강의록이었고 모두 논문으로 씌어져 이 책에 수록되었다. 이처럼 수록된 논문들은 석굴사원에 대한 현지조사, 고문헌 자료에 대한 검색, 교학 과정에서 정리된 성과들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집으로 엮으면서 재수정에 다시 재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책에 모아진 논문들은 매우 정제된 문장과 자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그리고 50년대에서 70년대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70년대부터 1996년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약 30년의 중국 석굴사원 연구의 결과가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사실, 이 책이 출판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책의 평을 쓰는 이유는 대략 아래의 세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중국 석굴사원을 포함하는 불교 미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를 뛰어 넘는 연구 성과가 아직은 없고, 현재까지 매우 유용하게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중국 불교고고학의 방법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의 이해를 통해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세부적인 주제 연구에서도 중국 석굴사원의 풍부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세 번째 이유이다.

3) 속백선생은 1962년 돈황문화연구소 학술보고를 통하여 석굴사원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제기와 그 연구방법으로 고고학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중국고고학의 한 범주로 인식하게 된다. 돈황칠강(敦煌七講)은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중국 불교석굴사원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II

이 책의 첫 번째 글은 「중국 석굴사 고고」로 『중국 대백과 전서·고고학』(1986) 권에 실린 중국 석굴사에 대한 개설이다. 중국 석굴사원의 연구사, 석굴사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전국을 크게 네 개의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의 대표적인 석굴, 개착연대와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석굴사원의 지역 구분은 대체적으로 신강지구, 중원북방지구, 남방지구, 서장(티벳)지구로 나누었다. 신강지구는 다시 키질석굴을 대표로 하는 구자 지역, 고대 연기국(焉耆國)을 중심으로 하는 연기지역, 베제클릭석굴로 대표되는 고대 고창국 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신강지구는 대상굴(大像窟), 승방굴(僧房窟), 선굴(禪窟)이 많다는 점, 그리고 5세기에서 8세기의 석굴 개착 제재와 그 변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8세기 이후에는 중원북방지구에서 성행하는 아미타와 아미타정토, 기타 정토 관련도상, 그리고 밀교 도상이 점차 이곳으로 전파되며 벽화 배치와 그 회화 기법에서 중원북방지역의 분명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중원북방지역은 돈황석굴을 비롯한 안서 유림굴과 천불동, 주천 문수산석굴, 무위 천제산석굴 등을 포함하는 하서주량지역, 영정 병령사석굴, 천수 맥적산석굴, 고원 수미산석굴 등을 포함하는 감숙성(甘肅省)과 영하성(寧夏省)의 황하 동쪽 지구이다. 황하 동쪽지구에는 무량수불과 420년의 제기가 있는 병령사석굴 169굴이 포함되어 있다.

남방지구의 석굴은 남아 있는 유적이 많지 않다. 이 몇몇 유적조차도 분산되어 발견되며 동굴보다는 마애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5~6세기에 개착된 남경 서하산 석굴과 신창 담계대불을 시작으로 13세기까지 석굴개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서장지구는 거의 대부분의 석굴이 선굴과 승방굴로 불상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애불은 많은 편이며 석가, 미륵, 천불, 11면관음상과 각종 호

법신상, 그리고 육자 진언(六字眞言)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이 10세기 이후 티벳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설한 네 개 지구의 개별 석굴사원마다 성행하는 시기가 다른 것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순서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460년부터 465년까지 개착된 운강석굴의 담요 5굴은 분명히 이보다 빠른 시기의 신강고대 구자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하서주랑지구 초기 석굴사원의 벽화 또한 신강지역의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5세기 말에는 남방에서 중원 북방지역에 영향을 주어 강남의 무량수불 숭배가 중원 서부지역의 석굴개착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석굴간의 상호 영향관계, 즉 석굴 개착의 선후 문제는 종종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북조말기 석굴사원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몇몇 석굴사원의 개착연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백과 전서의 중국 석굴사 편에서 석굴사원의 지역과 시기 구분인 분기(分期) 연구에 따른 결과가 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이 1986년 대백과 전서에 실린 이후, 다시 이 논문집으로 엮어 출판하면서 문장의 오탈자 수정과 함께 그간 새로이 조사 연구된 서장지역(티벳)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III

중국 석굴사원을 개설하는 「중국 석굴사 고고」 이외에는 모두 22편으로 내용에 따라 아래의 6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강 배성 키질석굴 몇몇 동굴의 유형과 연대(新疆拜城克孫爾石窟部分洞窟的類型與年代)」(1990), 「양주석굴과 ‘양주모식’(凉州石窟與

‘涼州模式’」(1986) 등 중국 석굴사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개착된 석굴사원에 대한 연구이다.

「신장 배성 키질석굴 몇몇 동굴의 유형과 연대(新疆拜城克孫爾石窟部分洞窟的類型與年代)」에서는 키질석굴 각 개별 동굴의 유형을 분류 비교하여, 석굴의 개착 연대를 4세기 초 이전으로 비정하였다. 이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감숙지역의 석굴사원들보다 1세기 정도 빠른 것으로, 중앙아시아의 석굴사원이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중간 지점임을 의미한다. 특히, 석굴사원의 양식 면에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얀 석굴과 같은 거대불상을 조상하는 형식의 석굴사원 구조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이 형식은 460~465년에 개착되는 운강석굴 담요 5굴(특히 16, 18 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키질석굴의 풍부한 벽화 자료는 중간 매개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키질석굴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다. 즉, 키질석굴에서 운강석굴 등 중국 내지로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키질석굴과 동시대이거나 이보다 약간 늦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서양 교섭사에서 불교가 동에서 서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의 전파가 가능하였다는 키질석굴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더 큰 의미 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키질석굴과 같이 이른 시기의 석굴사원 연구 논문으로 「양주석굴과 ‘양주 모식’(涼州石窟與‘涼州模式’)」(1986)이 있다. 이 논문은 양주(涼州, 현 무위武威)에 개착된 무위 천계산석굴(天梯山石窟) 1, 4호, 감숙성의 금탑사석굴(金塔寺石窟)과 주천 문수산 석굴(文殊山石窟), 그리고 이 부근의 병령사석굴(炳靈寺石窟) 제169굴과 주천, 돈황, 투루판에서 출토된 복랑석탑에 대한 연구이다. 이 유적 또는 유물이 조성된 시기는 4~5세기로, 당시의 무위는 실크로드의 상업도시로 번성하였으며, 유명한 승려들이 모여들어 역경사업이 활

발히 이루어지던 곳이다. 숙백 선생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이 양식을 ‘양주모식’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는 북위(386~534)의 수도 대동에 위치한 운강석굴에 대한 논문이다. 「대금 서경 무주산 중수 대석굴사비 교주(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校註)」(1956), 「운강석굴분기시론(雲岡石窟分期試論)」(1978), 「대금서경무주산 중수대석굴사비의 발견과 연구(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的發現與研究)」(1982), 「평성의 권력집중과 운강모식의 형성과 발전(平城實力的聚集和雲岡模式的形成與發展)」(1991), 「항안진과 항안석굴(恒安鎮與恒安石窟)」(1994)등이다.

중국 남북조시기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현 대동) 지역에 황실과 귀족들이 개착한 운강석굴에 관한 연구 논문 5편이다. 불교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던 북위의 수도에 황실에서 개착한 석굴사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다시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금 서경 무주산 중수 대석굴사비 교주(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校註)」에서는 운강석굴 각 동굴을 ‘대금서경무주산중수대석굴사비(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에 기록되어 있는 10개의 사원이 현재의 어느 석굴사인지를 밝히고 있다. 운강석굴에서 두 개의 동굴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형식의 동굴 중 시기가 빠른 7, 8굴을 호국사(護國寺)로, 화려한 문양이 돋보이는 9, 10굴을 숭교사(崇敎寺)로, 3굴을 영암사(靈巖寺)로 비정하였다.

「운강석굴 분기 시론(雲岡石窟分期試論)」에서는 동굴 개착 방식(평면도)에 따른 형식 분류와 주요 조상 재재(내용)를 근거로, 석굴사원의 개착시기를 북위 화평(和平)원년에서 6년까지(460~465), 화평 6년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는 태화(太和) 18년까지(465~494), 태화 18년부터 정광(正光) 5년까지 3기로 나누고 있다. 「평성의 권력집중과 운강모식의 형성과 발전(平城實力的聚

集和雲岡模式的形成與發展」(1991)에서는 당시의 북위 정권의 정치적 변화가 석굴개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러한 배경에서 운강모식(雲岡模式)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내지의 가장 이른 시기의 석굴 사원이며 북위 황실에 의해 전국의 가장 이름 난 명장들이 가장 높은 기술과 풍부한 물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양식은 자연스럽게 전국 석굴사원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요녕성 의현 만불당석굴에서 감숙성의 돈황석굴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운강석굴 연구는 석굴사원이 본격적으로 개착되기 시작하는 4~5세기의 석굴사원 모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실크로드 초입에 해당되는 돈황석굴에 대한 연구이다. 「막고굴기」발(「莫高窟記」)(1955, 1982), 「돈황막고굴 제285굴 예기 참관(參觀莫高窟第285窟禮記)(1956)」, 「돈황막고굴 초기 동굴 참고(敦煌莫高窟早期洞窟雜考)」(1978), 「양한 위진남북조시기의 돈황(兩漢魏晉南北朝時期的敦煌)」(1982), 「동양왕과 건평공(두번째)(東陽王與建平公(二稿))」(1988), 「건평공 우의 속고(建平公于義續稿)」(1986), 「무주 성력이군막고굴불감비」 합교(「武州聖歷李君莫高窟佛龕碑」合校)」(1990)에서 돈황석굴 개착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막고굴기〉와 〈이군막고굴불감비〉의 기록에 따라 돈황석굴의 개착은 전진(前秦) 건원(建元)원년에서 2년(365~36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숙백선생은 현존하는 석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268, 272, 275동 등 연대를 개착 당시가 아닌 운강석굴에서 ‘운강모식’이 성립된 이후인 태화 8년에서 18년(484~494)으로 보고, 이 초기 동굴은 ‘운강모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북위 말 동양왕(東陽王) 원영(元榮)이 과주자사(瓜州刺史)로 파견된 시기(525~542), 북주(北周)

건평공(建平公) 우의(于義)가 과주자사로 있을 당시(561~542)에 돈황석굴은 북위의 낙양, 북제 북주 시기 석굴사원의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돈황 막고굴 제285굴 예기 참관(參觀莫高窟第285窟禮記)(1956)」에서는 돈황석굴 285굴의 벽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그려진 사실을 발견하고, 동양왕 원영에 의해 개착된 285굴의 절대 연대를 이용하여 돈황석굴의 북위 시기 동굴의 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현존 막고굴 초기 동굴의 연대문제(莫高窟現存早期洞窟的年代問題)」(1989)에서도 돈황석굴 268, 272, 275동의 연대를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화8년에서 18년(484~494) 운강석굴 2기석굴과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돈황연구원의 번금시(樊錦詩) 등은 이 초기 동굴들의 개착을 양주모식의 성립과 같은 좀더 이른 시기(421~439)로 보기도 하였다⁴⁾. 돈황석굴의 초기 동굴의 개착 연대 문제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따라, 혹은 연구 조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혹은 새로운 연구 자료와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료를 이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⁵⁾.

「돈황 막고굴 밀교유적 예기(敦煌莫高窟密教遺跡禮記)」(1989)에서는 밀교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당대(唐代)를 시작으로 원대의 티벳 불교가 성립될 때까지의 밀교도상에 관한 연구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밀교는 경법(經法)뿐만 아니라 도상으로 그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역대 왕조의 폐불정책과 종파간의 불협화음으로 각지의 도상들은 거의 파괴되어 잘 남아있지 않다. 논문에서는 돈황 막고굴과 안서 유림굴 등의 밀교 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낙양 용문석굴, 사천성의 대족석굴, 광원지역

4) 樊錦詩, 馬世長, 關友惠, 「돈황 막고굴 북조 동굴의 분기(敦煌莫高窟北朝洞窟的分期)」 『중국석굴 돈황막고굴(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一) 문물출판사, 1982.

5) 중국 내 초기 주요 석굴사원의 개착 연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온옥성, 「중국 초기 석굴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中國早期石窟寺研究的幾點思考)」, 『돈황연구』 2(총 제 64기), 2000.2.참조

의 밀교 도상을 참고하였다. 중국 밀교 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문이다⁶⁾. 그리고 소개한 돈황석굴 막고굴 벽화,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밀교 문헌, 각종 비단에 그린 도상, 종이묶음 등의 자료들 또한 당대(唐代) 밀교 연구 또는 티벳 불교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다.

네 번째는 중국 남북조시기 북위 효문제(현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는 태화 18년(494) 전후부터 동위(東魏)의 수도 업성(鄴城)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낙양지역의 북조 석굴사원 연구이다. 대략 494년부터 534년에 개작된 석굴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낙양지역 북조 석굴의 초보적 고찰(洛陽地域北朝石窟의 初步考察)」(1990)에서는 낙양지역의 북조 석굴사원을 태화 18년부터 연창(延昌)4년까지(494~515), 회평(熙平)원년부터 효창(孝昌)3년까지(516~527), 효창이후부터 북위 말까지(528~581), 북제북주시기(534~581)의 4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불교 조각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1979년 발굴된 낙양 영녕사(永寧寺)의 발굴 결과로 낙양 석굴사원의 조각들이 이 시기에 건립된 사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숙백선생은 영녕사의 발굴품으로 보아 낙양으로의 천도 이후 불교 예술에서 분명한 남조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남조의 영향에 따라 조각 양식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남조의 불교 유적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로는 「남조 감상 유적 초탐(南朝龕像遺跡初探)」(1989)가 있다. 사실 현존하는 남조의 불교 유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강소성 남경의 서하산 천불암은 훼손되어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절강성의 신창(新昌) 보상사(寶像寺) 대불 또한 후대에 이루

6) 원대 항주의 티벳불교에 영향을 받은 도상들에 대한 조사와 티벳 지역에 불교사원을 조사한 내용은 숙백 『티벳불교사원 고고학(藏傳佛教寺院考古)』 문물출판사, 1996. 참조.

어진 여러 차례의 보수로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효문제의 한화 정책과 한화정책을 위해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 도성의 구획, 의복의 한화 등의 모든 면에서 남조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조상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티벳 불교에 관한 논문이다. 「서장 라사 예나노포석굴사에 관하여(記西藏拉薩禮拉魯浦石窟寺)」(1996)는 서장문관회가 1985년 출판한 『라사문물지(拉薩文物志)』와 이를 보충하여 발표한 「라사 사납로포석굴 조사 간보(拉薩查拉路浦石窟調查簡報)」⁷⁾가 학술계의 주목을 받은 이후, 이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다⁸⁾. 사납로포석굴(查拉路浦石窟)은 중심 탑주 각 사면에 감을 조성한 형태로, 북위 말에 개착된 낙양 공현 석굴 1, 3굴, 수미산석굴의 북주시대 개착된 45, 46, 51, 67, 70굴 그리고 돈황석굴의 북주시기 290, 428, 442동 등 남북조말기 중국 석굴사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이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지 석굴사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석굴 구조라는 점이 주목된다.

「원대 항주 티벳밀교 전파와 그 유적(元代杭州的藏傳密教及其有關遺跡)」(1990)은 항주 티벳불교 석굴사원의 양식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20~30년 동안 새로이 조사된 석굴사원 자료이다. 13세기 이후 티벳불교의 밀교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항주 비래봉에 남아있는 티벳 밀교와 그 관련 유적에 대한 문헌기록과 조사내용이다.

여섯째는 부록으로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유혜달(劉慧達)이 쓴 「북위

7) 西藏文管會文物普查隊 「라사 사납로포석굴 조사 간보(拉薩查拉路浦石窟調查簡報)」 『문물』 1985년 9기.

8) 서장 라사의 예나노포석굴(禮拉魯浦石窟)과 사납로포석굴(查拉路浦石窟)은 같은 석굴을 말하며 티벳어 음역의 차이로 두 가지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석굴과 선(北魏石窟與禪)」(1962), 「북조 조형 예술 중 인물 형상의 변화(北朝造型藝術中人物形象的變化)」(1989), 「이군 막고굴 불상비」의 세 가지 탁본과 두 기록에 관하여(「李君莫高窟佛像碑」三種拓本與兩種錄文合抄)」(1996) 등이다.

IV

숙백선생의 『중국 석굴사 연구』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전역의 불교 석굴사원의 조사 과정과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대한 중국의 권위 있는 서평(書評)에서는 1950년대 이전 서방 국가의 연구자들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석굴사원을 조사 연구하였다면, 숙백 선생은 중국고고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고고학적 방법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그의 연구는 ‘중국 고고학 연구 방법론을 중국 석굴사연구에 적용 실험하는 중국석굴사고고학의 성립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라고 하였다.⁹⁾ 고고학적 방법이란, 예를 들면 고고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인 층위학을 이용하여, 석굴사벽화 또는 석굴 벽면의 중첩 관계를 파악하여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 등의 연구방법을 말한다¹⁰⁾.

9) 徐蘋芳 「중국 석굴사고고학의 창건과정 - 숙백선생의 『중국석굴사연구』를 읽고(中國石窟寺考古學的創建歷程 - 讀宿白先生『中國石窟寺研究』)」 『文物』 1998.2.(총 제 501기)

10) 중국 석굴고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徐蘋芳 「석굴고고학의 새로운 성과 - 『중국석굴』 신강 및 용문 편을 평하며 - (石窟考古的新成果 - 評『中國石窟』新疆和龍門卷)」 『고고(考古)』 1989.1.; 徐蘋芳 「중국 석굴사고고학의 창건과정 - 숙백선생의 『중국석굴사연구』를 읽고(中國石窟寺考古學的創建歷程 - 讀宿白先生『中國石窟寺研究』)」 『文物』 1998.2.(총 제 501기) 참조

이 책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 석굴사 연구에서 ‘양주 모식’, ‘운강모식’ 개념의 도입이다. 그는 풍부한 역사문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요 거점 지역에서 형성된 불교 조각의 양식을 정리한 것이다. 양주모식은 4~5세기 양주 지방에서 성립된 중국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 석굴과 조각 양식이다. 양주모식의 성립은 타림분지 북쪽의 구자국이나 남쪽의 우전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병령사를 포함하는 장안 불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양주는 당시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매우 번성하던 곳으로 물적 자원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마라집이 17년 동안이나 머물며 역경 사업하였던 곳으로 북량의 저거몽손에 의해 불교가 매우 성행하던 곳이다. 운강모식 또한 북위 정권의 수도 대동에 개착된 운강석굴의 성립과 발전과정이 북위 정권의 권력변화와 제도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역사 문헌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에서의 조상활동을 살펴보고, 이 ‘중심지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창조력’이라는 의미에서 ‘모식’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역사자료의 맹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역사 문헌을 통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교 유적 유물에 반영된 변화를 밝히고 있어 조각 양식의 자체 발전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논쟁은 숙백선생과 나가히로 도시오(長廣敏雄)교수의 운강석굴 연대에 관한 것이다. 나가히로 도시오(長廣敏雄)교수는 1980년 「대금 서경 무주산 중수 대석굴사비 교주(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 校註)」(1951, 1956), 「운강석굴분기시론(雲岡石窟分期試論)」(1978)에 대한 반박논문인 「숙백의 운강석굴분기론에 대한 반박(宿白氏の雲岡石窟分期論を駁す)」을 발표하였다¹¹⁾. 나가히로 도시

11) 나가히로 도시오(長廣敏雄) 「宿白氏の雲岡石窟分期論を駁す」 『동방학』 제 60집.

오교수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석진지(析津志)』 『금비(金碑)』 등 문헌기록에 기대어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양식론에 의한 연대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운강석굴의 연대 및 분기 연구는 「석진지」에 실린 「금비」 등 문헌기록이 아닌 양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2년 숙백선생은 ‘일본 나가히로 도시오교수와 운강석굴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는 부제를 단 「대금서경무주산 중수대석굴사비의 발견과 연구(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의發現與研究)」(1982)에서 나가히로 도시오교수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운강석굴의 연대가 기록된 「금비」¹²⁾는 비석은 현존하지 않지만 탁본이 「석진지」에 남아 『영락대전(永樂大典)』에 실려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양식론에 의한 연대 추정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가히로 도시오교수와 숙백선생의 논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가히로 도시오와 숙백은 운강석굴의 연구방법론이 다르고, 연대추정의 결과가 서로 달랐다. 나가히로 도시오교수는 석굴사원 연구에 있어서 석굴구조와 그 조각 및 회화 양식의 연구를 선행하고, 둘째 조상기, 셋째 문헌자료, 넷째 연구사 등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조각론이나 양식론을 연구의 방법 혹은 그 목적으로 두었다. 이에 대해 숙백선생은 대상품에 대한 연대추정, 시기별 변화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원인 등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역사 문헌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논쟁은 20세기 초부터 50년대 초까지 서구 열강과 일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사한 중국 석굴사 자료에 대해 50년대 이후 중국학자들에 의해 재조사가 진행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¹³⁾.

12) 대금서경무주산중수대석굴사비(大金西京武州山重修大石窟寺碑)의 줄임말

13) 중국 내에서의 중국석굴사원의 연구사는 다음 참고, 숙백(宿白) 「석굴사고고학 회고(石窟寺考古的回顧)」 『문물(文物)』 1979.10.; 온옥성(溫玉成), 이옥곤(李玉昆) 「용

또한, 이 책은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사적 측면에서도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정표 같은 저작이다. 중국 석굴사 연구 1세대가 이룬 최고의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으며, 1950년 중화 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부터 시작된 석굴사원 연구의 총합이라 할 만하다. 그의 연구 여정은 먼저 돈황과 운강석굴, 용문석굴, 키질석굴, 서장으로 이어졌으며, 이 석굴들은 모두 중국 주요 석굴사원이다. 아마도 이후의 중국 석굴사원의 연구는 이보다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각 지역 연구 기관들의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 중국의 개발 붐으로 구제발굴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자료의 소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각 지방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보고 형식의 저작들이 점차 출판되고 있고 또 각 지방 박물관도 특성화되어 불교조각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하거나 불교조각실을 두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자료 소개와 연구성과가 정리되어 이 책과 같은 대저작이 다시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석굴 연구 40년 회고(龍門石窟四十年研究回顧) 『세계종교연구(世界宗教研究)』 1989.2.; 정명이(丁明夷) 「운강석굴 연구 50년(雲岡石窟研究五十年)」 『중국석굴 운강석굴(中國石窟 雲岡石窟)』 문물출판사, 1994.; 이력(李力) 「중국 석굴사고고학 40년(中國石窟寺考古四十年)」 『세계종교연구(世界宗教研究)』 1992.3.; 유유군(劉裕群) 「중국 석굴사고고학 50년(中國石窟寺考古五十年)」, 『고고(考古)』 1999.9.; 유건화(劉建華) 「중국 불교석굴사고고학 50년(中國佛教石窟寺考古五十年)」 『중국고고학의 세기를 넘는 시기의 회고와 전망(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과학출판사, 2000.